

2020년 11월 22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7편 7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47편 7절)

◎ 찬 송 / 93장(통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신약p.329)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3.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5.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6.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7.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9.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 말씀선포 /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자세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도의 권위와 함께 데살로니가교회에 보여 주었던 사도바울의 모본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자세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바른 열매, 즉 삶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하는 바른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1. 성도의 행함은 성결한 마음의 동기로 행해야 합니다.

- 사도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의 열망은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성결한 마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낮에 일을 하여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으며 사람들로 부터 명예나 인기를 얻으려는 동기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본문 5~6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사역과 봉사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익에 눈멀어 부정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기신 봉사의 자리에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숨겨진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잠언 21장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7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며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시며 중심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면을 채워 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직책과 직분,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선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능과 힘과 능력을 보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어렵고 힘들기에, 어쩌면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바로 지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으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충성되고 진실한 일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 받은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시간과 물질을 주심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주님을 위하여 일해야 할 그 때, 순종함으로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유순하게 대해야 합니다.

-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거룩한 동기로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유순하게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8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고 했습니다. 유순하게 대했다는 것은 온유하고 선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했다는 뜻입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태도를 갓난아기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유순한 태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기를 위해 조심할 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아가 그 사랑으로 아기를 위해 모든 정성과 마음을 쏟아 붓습니다. 사도바울은 바로 이러한 유순한 양육자의 태도야말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지체된 자들,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필요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직책과 직분과 그리고 봉사는 다른 사람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감정을 쏟아 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말을 조심하고, 다른 지체보다 한발 앞서 먼저 행동하는 섬김의 손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헌신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들을 살피고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귀한 영혼에 더욱 눈을 돌려 살피시기 바랍니다. 일이 늦어지더라도 지체들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모양으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태도는 다른 성도들에게 중요한 모본과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봉사나 사역을 하든지 개인의 이득을 위해 나선다거나, 함께하는 지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키는 노력을 통해 사명의 자리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23장(통355)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 폐 회 / 주기도문